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라, 멘탈경영

미국의 거대 에너지 그룹인 엔론이 파산한 지도 4년이 훌쩍 넘었다. 2001년 12월 당시 엔론의 파산신청은 언론에 폼페이 최후로 묘사됐다. 회계분식은 물론 고위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금전적, 성적 타락은 바로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폼페이에 비유될 정도였다. 이 사건은 미국 산경제 거품의 실제와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엔론 사태가 9·11 테러보다 미국경제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보다 중요한 건 경영자의 내면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 옥슬리(Sarbanes-Oxley)'라는 강력한 기업회계개혁법을 제정하는 등 회계부정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영의 주체가 사람인 만큼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다. 법적제도의 보완, 윤리 재무장 운동 같은 대책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바로 최고경영자 자체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두되는 것이 멘탈경영이다. 멘탈경영은 기존의 윤리경영의 차원보다 심화되고 경영자의 내면적 세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영자의 행복추구에 대한 관리도 강조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비즈니스 경쟁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영자일수록 일과 삶의 조화, 내면의 안정, 일상에서의 행복추구 등 정신적인 영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21세기 경영자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기본과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지혜를 꼽는다. 또한 경영자는 한정된 자기분야를 초월해 관련영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적 시야의 확장을 필요로 하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지혜, 정의감, 강인성, 절제력이야말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수동적 다수의 수용과 존

경을 받아야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롭포터노벨리에서 발표한 기업사회공헌과 명성지수를 보면 기업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가운데 경영성과 브랜드가치 등 '경영전략적 요인'이나 이미지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비전, 철학, 사회공헌, 리더십 등 '정체성 요인'은 많게는 다섯 배 이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이익, 광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여부에 따라 존경할만한 기업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의미를 담는다.

마음의 안정은 곧 경영 안정

경영자는 철인이 아니다. 국내 재벌그룹 총수의 사망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암이다. 그리고 피로와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노출과 누적의 발병 요인이었다는 분석을 본 적이 있다. 피곤과 스트레스 속에서 진정한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멘탈경영은 경영자로서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속에서 경영과 인생의 탄구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로 요가, 명상 등이 '멘탈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의 첫째 비결이라고 말한다. 허영호 LG인노텍 사장이 매일 2~3분간의 명상시간 동안 꺼내는 명상의 화두는 늘 '감사'다. SK네트웍스 정만일 사장은 "마음의 평정을 이루면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판단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경영에서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해서라도 인생의 본질과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멘탈경영이 필요하다. 그것이 벤처기업들을 한국판 엔론의 추역으로 거듭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